

한국계 감독·배우 '패스트 라이브즈', 골든글로브·크리틱스초이스상 후보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쉐린 송이 연출하고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와 한국 배우 유태오가 주연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Past Lives)가 골든글로브 5개 부문 후보, 크리스틱초이스상 3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미국 영화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골든글로브 주최 측이 11일 발표한 제81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패스트 라이브즈'는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비영어권 영화상, 영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배우 그레타 리) 후보로 지명됐다.

또 13일 크리스틱초이스협회(CCA)가 발표한 제29회 크리스틱초이스상 후보 명단에서 작품상과 각본상,



▲ '패스트 라이브즈' 포스터, 사진=CJ ENM

여우주연상등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크리스틱초이스상을 주관하는 CCA는 미국·캐나다의 방송·영화 비평가 6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어린 시절 헤어진 뒤 20여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한 두 남녀를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호평받은 뒤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독립영화·드라마 시상식 고섬어워즈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특히 크리스틱초이스상은 "역사적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작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상"이라고 자부하고 있어 '패스트 라이브즈'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 국립영화보관소, 영구 보존 대상 영화 25편 발표

미 의회도서관 산하 국립영화보관소(National Film Registry)는 13일 올해 보존 대상으로 선정한 영화 25편을 발표했다. 이 기관은 미국 문화의 유산으로서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장편,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25편을 매년 선정, 영구 보존하자는 취지로 발표한다.

올해 발표한 영구 보존 작품 25편 가운데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생각나는 영화 '나홀로 집에'와 SF 액션영화의 고전인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등이 포함됐다.

1990년 개봉된 '나홀로 집에'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이 휴가를 가면서 집에 홀로 남겨진 소년 '케빈'이 빈집 털이범인 2인조 도둑에 맞



▲ '나홀로 집에' 포스터, 사진=National Film Registry

서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소동을 그린 영화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1991년 개봉된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은 미래에서 온 인간형 로봇과 인류 저항군의 사령관이 될 '존 코너' 모자가 처절하게 싸우는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대표작이자, 지금은 '아바타' 시리즈로 유명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선정작을 더해 미 국립영화보관소에 등재된 영화는 총 875편이 됐다.

자세한 목록은 <https://variety.com/2023/film/news/national-film-registry-2023-home-alone-terminator-12-years-a-slave-12358338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글로리' 전세계 6억 시간 시청 넷플릭스 상반기 3위



▲ '더 글로리'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송혜교 주연의 시리즈 '더 글로리'가 올 상반기 넷플릭스 시청 시간 집계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

12일(현지시간)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 넷플릭스가 공개한 '2023년 1월~6월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더 글로리: 시즌1'은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6억2,280만 시간 시청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1위는 미국 액션 스릴러 '나이트 에이전트: 시즌1' (8억1,210만 시간)이었고, 2위는 코미디 드라마 '지니 & 조지아: 시즌2' (6억6,510만 시간)였다.

이 밖에 '웬즈데이 시즌1' (5억770만 시간), '퀸 샬롯: 브리저튼 스토리' (5억300만 시간) '너의 모든 것(You)시즌4' (4억4,060만 시간), '남부의 여왕 시즌3' (4억2,960만 시간), '아우터뱅크스 시즌3' (4억250만 시간), '지니&조지아 시즌1' (3억210만 시간), '푸바 시즌1' (2억6,620만 시간)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100위권 내 한국 작품은 '피지컬 100' (15위), '일타 스캔들' (16위), '닥터 차정숙' (25위) 등 총 14개 작품으로 이들 작품은 총 25억81,30만 시간 시청됐다.

한편 '더 글로리'는 지난해 12월30일 시즌1이 공개된 후 한국을 비롯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서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인기몰이를 했다.

숫자퍼즐 정답

9	7	1	6	8	2	4	5	3
8	2	3	5	7	4	1	9	6
6	4	5	1	3	9	8	2	7
1	6	4	8	2	7	5	3	9
2	3	8	9	4	5	6	7	1
5	9	7	3	6	1	2	8	4
3	8	2	7	1	6	9	4	5
4	1	9	2	5	3	7	6	8
7	5	6	4	9	8	3	1	2

숨은그림찾기 정답

